

# 어머니회 “코로나 위기 함께 이겨내요”

상해한국학교 장학금 1만 5000원 전달  
홍차오전 불우 아동 돕기에 1만원 기부



상하이한인어머니회(회장 김규미)가 코로나19 어려움을 속에서도 상해한국학교와 홍차오전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상하이 한인 여성들의 문화강좌를 열고 교민사회 기부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상하이한인어머니회는 지난 18일 상해한국학교에 장학금 1만 5000위안을 전달했다. 이어 23일에는 홍차오전정부에 불우 청소년과 아동 돕기에 써달라며 1만 위안을 기부했다. 김규미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교민 가정들이 많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여파로 3, 4, 5월 정규 문화강좌를 휴강하면서 어머니회 또한 위기를 겪었으나 6월부터 홍차오전 정부에서 문화센터 개방을 허가해줘서 강좌를 열 수 있었다. 중국 역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돌파하고 있으므로 이 기부금이 중국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인어머니회는 회원들의 참여와 강사들의 재능기부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교민사회와 중국 정부에 나누고 있다. 상해한국학교와 홍차오전정부에 매년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희망도서관, 상하이한인여성네트워크 ‘공감’ 등 교민사회 곳곳에 발전기금을 전달한 바 있다.

## 틱톡, 내년 뉴욕 증시 상장한다

미국 유럽 가입자 1억 명  
전세계 다운로드 20억 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행정 명령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틱톡이 12개월 안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준비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18일 중신경위(中新经纬)는 로이터통신과 CNBC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틱톡의 모(母)회사인 바이트댄스(字节跳动)가 1년 안에 틱톡의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전했다. 틱톡이 처음으로 기업공개(IPO)하는 곳은 뉴욕이다. 틱톡은 바이트댄스의 자회사로서 바이트댄스 그룹 산하의 해외 동영상 공유 앱인 TikTok을 담당하고 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문건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틱톡의

글로벌 월별 활동 계정은 이미 6억 8900만 개에 달했다. 이 중 미국과 유럽의 가입자수는 1억 명이다. 올해 8월까지 전 세계에서 틱톡의 다운로드 수는 이미 20억 회를 넘어선 상태다. 틱톡은 상장 전 전략적 파트너를 모집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한 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틱톡은 이번 상장을 통해 틱톡을 ‘대중 기업’으로 만들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겠다는 의도다.

# 상하이총영사관, 2020 개천절 기념 국경일 리셉션 개최

상하이총영사관은 2020년 개천절 계기 국경일 리셉션을 지난 24일 총영사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관할 지역 각급 지방정부 인사, 문화계, 학계, 기업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올해 국경일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상하이 소재 외국 총영사관들 대부분이 관련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한 상황에서 개최돼 더욱 의미가 컸다고 한다.

최영삼 총영사는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와 중국, 특히 상하이시를 포함한 화동지역의 성공적인 방역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방역·의료물품 지원 등을 통해 보여준 우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의 방역 규칙 등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별도 주빈 초청 없이 예년 대비 소규모로 개최됐으나, 각급 지방정

부 인사들의 축하 영상, 한중 합심 코로나 극복 영상 상영 및 문화공연 등을 통해 그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시간을 기억하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었다.

문화공연으로 독립유공자 운암 김성숙 선생의 후손인 두닝우 교수의 <아리랑 판타지> 피아노 연주가 상영됐으며, 한중 양국 연주인들로 구성된 하모니아 공연팀이 양국에서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 주제곡 등을 연주하여 내빈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행사장 외부에는 △ 수문장·대장금 등 전통복식 소개 △ 한국 관광 홍보물 전시 △ 포토존(한국 건축물, 한식)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 되어, 코로나19 이후 관광 등 한·중 간 인적교류 재개를 위한 준비의 장으로서도 의미가 컸다.

## 중 증권업계 새바람, 귀진·귀렌 합병

귀렌증권, 귀진 지분 78.2% 인수

2020년 들어 최초의 증권업계 인수합병이 일어날 예정이다. 기존에 큰 증권사가 경쟁력있는 소형 증권사를 인수하는 방법과 달리 오히려 업계 순위권이 낮은 증권사가 높은 증권사를 인수해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2일 동방재부망(东方财富网)에 따르면 귀렌증권(国联证券)이 창사웅진(长沙涌金)이 보유한 귀진증권(国金证券) 지분 78.2%를 인수한다. 또한 귀렌증권은 귀진증권 주주에 A주를 발행하면서 지분 교환 방식으로 귀진을 흡수 합병할 예정이다.

이번 인수합병은 ‘상장기업의 중대 자산 재편 관리 방법’ 규정에 해당되어 주식 거래를 중단한다.

인수합병 후에는 시가총액이 16조원이 확대되어 업계 순위 13위 정도에는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 자산은 300억 위안(약 5조)으로 늘어 업계 순위 20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양사는 합병 후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와 같은 투자은행 사업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 01 전 의료진 상해 7년 진료경험
- 02 첨단 의료장비(최신CT) 시스템
- 03 정확한진단및 서울 강남치과 연계진료
- 04 책임감 있는 치료 후 관리

# 에이스치과 최고의 전문가 7인이 함께합니다



이영준 대표원장

- 가톨릭대학교 임플란트학과 석사
- 동대학원 외래교수
- MCU 치과대학 졸업
- 미국치과의사고시 합격 (National Board Exam.)
- AIC 임플란트 고급과정 수료
- 국제임플란트학회 정회원(COI)
- 한태평양임플란트학회정회원(PPIS)



정성민 원장

- 임플란트, 심미보철 전문
- 북경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북경대학교 치과대학원 연구생 수료
- 중화구강 의학회 회원
- 대한구강악안면 임플란트학회 국제회원
- 미국 임플란트학회 회원
- 다년간 한국치과 진료



이명석 원장

- 교정과 전문의, 치의학박사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부속병원 인턴
- 교정과 레지던트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원 교정학 석사, 박사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 외래교수
- 아주대학병원 치과 임상교수 역임
- 세계교정사연맹 정회원
- 대한치과교정학회 정회원
- 한강남 대치동 이명석치과 원장



김태관 원장

- 교정과 전문의, 치의학박사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부속병원 인턴
- 교정과 레지던트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원 교정학 석사, 박사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 외래교수
- 미국 UCLA 치과대학 교정과 방문교수
- 대한치과교정학회 정회원
- 미국교정학회(AAO) 국제회원
- 현, 강남 신마일어게인 교정치과 원장



황양 원장

- 신경치료, 소아 진료 전문
- 상해교통대학 치과대학 졸업
- 주치의 직함
- 중화 구강의학회 회원
- 다년간 다 치과 주임직 담당
- 중화의학회
- 임플란트 계속교육원



최현경 원장

- 신경치료, 소아 진료 전문
- 연변대학 치과대학 졸업
- 주치의 직함
- 중화 구강의학회 회원
- AIC 임플란트학회 회원
- 한국 서울 교정센터 연수



이성일 원장

- 임플란트, 턱관절전문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 레지던트 수료
- 서울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 석·박사
- 전현대 중앙병원 치과 과장
-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악안면 성형외과학회 인정의
- 한강남 역삼동 이성일치과 원장



공식계정(公众号)



사오청쉬(小程序)

